

국민 보건 교육과 매스콤의 역할

—健協 언론인 초청 간담회 개최



健協은 지난 3월 24일 15시 30분부터 홍보관에서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보건교육에 있어서의 매스콤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간담회에는 경향신문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간지 기자 MBC, KBS방송국 기자를 비롯해 보사부 관계인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병설 회장은 인사를 통해, 『현재 우리 건강진단의 주 초점은 성인병에 맞추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예방적 차원에서 일생을 통한 건강관리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그러한 측면에서 대중 매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의대 소아과 홍창의 교수와 오대규 보건교육과장의 “소아의 심장병 관리와 학동 심장 집단 검진의 필요성”, “AIDS의 대 국민 홍보 활동 현황과 매스콤”이라는 내용의 주제 발표에 이어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는데, 홍창의 박사는 이날 주제발표 및 토의를 통해 『현재 서울시내 학생의 약 1.3%가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학생들이 심장병의 유무, 상태, 치료, 예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 오대규 과장은 『AIDS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은 점도 많은데 이것은 지속적인 보건교육에 의해 개선되어야 하며 매스콤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적절한 수준에서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최된 간담회는 심장병관리나 AIDS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보건 전반에 걸친 매스콤의 역할을 재설정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식 고취와 건강상식 함양

건강관리 공개 강좌 실시, 3월 부터 11월까지

健協 서울특별시지부는 3월부터 매월 1회씩 건강관리 무료 공개 강좌를 실시키로하고 지난 3월 22일 오후 2시부터 그 첫번째 강좌로 오대규 보건교육과장을 초빙해 "AIDS"에 대한 강의와 상담 시간을 가졌다.

일반주민과 보건관계자의 보건의식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건강상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이 강좌는 앞으로도 매월 4째 화요일 14:00~17:00에 본회 홍보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매월 특히 문제가 되는 질병을 중심으로 실시될 이 공개 강좌는 해당 질병의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초빙해 정확한 내

용을 전달하고 질의에 응답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시키는 한편, 각 강의의 내용은 자료화하여 추후의 계몽교육을 자료로도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

월별 강좌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월 19일 자궁암
- 5월 24일 심장질환
- 6월 21일 당뇨병
- 7월 19일 신장질환
- 8월 23일 고혈압
- 9월 20일 호흡기질환
- 10월 18일 위장질환
- 11월 22일 간장질환

무료건강 상담 등 다채로운 행사계획

4월 보건의 달 건강관리강조 주간도 설정



健協 본부 및 시도지부는 4월 보건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계획을 수립, 실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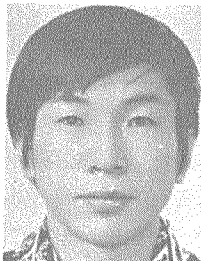
각종 유인물을 제작·배부하는 한편 건강관리 강조주간('88. 4. 18~4. 23)을 설정해 가두 상담소를 설치하고 무료 기생충 검사 건강상담, 혈액형 찾아주기 등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 계몽을 위한 라디오 스포트 방송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재현 검사소장, 홍성대 임상병리계장 선정

- 업무의 능률화를 위한 제안 포상제



조재현씨



홍성대씨

健協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본회 시책에 반영해 업무의 능률화를 기할 목적으로

로 제안 규정을 제정하고, 올해 1차로 본·지부 과소장을 주 대상으로 해 제안을 공모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 26건이 접수되었는데 심의위를 소집, 심의한 결과 전남 지부 조재현 검사소장과 서울지부 홍성대대 임상병리계장이 제안 포상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이번에 접수된 제안의 주된 내용은 사업 추진의 다원화 방안, 행정 업무 개선, 정도관리 향상 및 신규사업개발에 따른 방안 등이다.

신임 보건교육

과장에 吳大奎 씨

- 申碩鉉 씨는 국립서울검역

소장으로 승진발령



보건사회부는 지난 3월 10일자로 국립 서울 검역소장에 申碩鉉 보건교육과장을 승진·발령하고, 그 후임으로 吳大奎 방

역 담당관을 발령했다.

신임 吳大奎 보건교육과장은 '77년 전북의대를 졸업하고 '84년 연세의대에서 예방의학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84년 6월 부터 국립 공주결핵병원, 보건사회부 방역 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AIDS에 대한 연구 및 계몽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吳大奎 과장은 국민 건강 보건 전반에 걸친 계몽 교육 사업에 있어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

정확하고 능률적 검사 위한 사전 대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진단에 따른 교육



健協에서는 지난 3월 28일, 홍보관에

서 각 시도지부 사업과장을 대상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진단 실시 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진 단에 있어 보다 능률적이고, 정확한 검 사업무를 진행키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 에서는 본 건강진단의 목적, 실시대상 제외자, 진단 종목 및 진단비, 검진방법, 판정기준, 결과통보과정, 사후관리, 세부 실시요령 등이 교육되었다.

한편 올해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 원 건강진단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3개월간 2차에 걸쳐 실시된다.

전남, 경남지부 모범운영지부로

지부 운영실적 평가 결과

健協 전남지부와 경남지부가 '87년도 모범운영 지부로 선정되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87년도 세입율, 집행율, 납부실적등 을 기준으로 지부 운영 실적을 평가한결 과, 전북, 경북지부가 최우수지부로 선 정된데 이어 전남, 경남지부가 모범 운 영지부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 목표관리 평가 기준을 적용한 지 부운영실적 평가에 따른 최우수 및 모범 지부 선정과 장려금 지급은 '86년도 사 업 추진에 따른 직원의 사기진작 및 사 업의욕을 확산, 배가시키고, 타지부의 분발을 촉구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된다.